

태재대, 내년 3월 신입생 모집 수시·정시 지원 횟수 포함 안 돼



태재대(총장 염재호)가 2024학년 3월 신입생을 모집한다. 지난 9월에 이어 두 번째 신입생 모집이다.

신입생 모집 기간은 12월 5~14일이며, 선발 인원은 최대 100명이다. 1단계 서류 평가에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기반으로 3배수 이내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전형 방법과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재대는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으로, 수시 6회·정시 3회 지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재대는 9월 학기제로 운영되며 3월과 9월 두 차례 신입생을 모집한다. 3월 모집 합격자에게는 9월 입학 전까지 태재대 교육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영어, 제2외국어, 컴퓨터 언어, 글로벌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프레파라토orium(Praeparatorium·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은 "태재대는 수능 점수로 줄 세우기식이 아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원석 같은 인재를 찾는다"라며 "글로벌 인재 양성이 태재대의 미션인 만큼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여대, 전력거래소 '전국 에너지 공동 학점 과정' 참여

서울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사업단(단장 송미경)은 지난 9월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과 함께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 가치실현 직무 중심 교육의 '전국 에너지 공동 학점 과정'에 대한 협약을 맺고, 10월부터 해당 학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본 협약 및 교육은 전력 산업 융합형 인재 양성 및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전국 에너지 공동 학점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은 1차와 2차로 운영된다. 1차 교육은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차 교육에서는 1차 교육 수료자에 한해 채용 설명회, 멘토 및 선배와의 만남, 실무 특강 등 취업을 대비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한국탐정학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가톨릭대(총장 원종철) 부설 한국탐정학연구소는 11월 24일 '한국탐정학연구소 창립기념 학술세미나'를 열고 탐정학 연구자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국내 탐정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9월 개소한 한국탐정학연구소는 국내 최초의 종합대학 부설 탐정학 연구소다. 가톨릭대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탐정업을 법제화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탐정학 석·박사 과정을 신설했다.

이날 '탐정학의 연구 방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함혜현 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탐정학이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 교과목을 개설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